



실손의료보험 손해율에 대한 최근의 논란

정성희 연구위원

요약

■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과 관련하여 인상 근거로 사용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, 이는 첫째,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둘째,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함. 보험회사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손해율, 합산비율, 건강보험공단 방식 모두 10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.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,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임.

■ 최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일제히 인상된 것과 관련하여, 보험료 인상의 근거로 사용한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.

● 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분석 결과 2014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총보험료¹⁾ 기준 손해율은 80.2%(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 96.6%) 수준에 불과하다며, 보험회사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이유로 제시한 손해율이 과다하다고 주장함.²⁾

■ 이와 같은 주장은 실제 경험 통계를 토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보험상품의 손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실제 사업비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.

● 첫째, 건강보험공단이 인용한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는 보험개발원의 참조 통계를 근거로 하여 가공된 수치로, 실제 위험보험료보다 과대 계상된 수준임.

– 그 동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이 인위적으로 억제되어 왔기 때문에 경험 통계에 기반한 위험보험료가 보험개발원의 참조 위험률³⁾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기인함.

1)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보험금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부가보험료를 합한 금액.

2)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보고서(보건사회연구원(2015), 『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 방안』)를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 둘째, 건강보험공단이 손익을 판단하기 위해 산출한 손해율은 “지급보험금/총보험료”이나, 정확한 기준인 “(지급보험금+실제 사업비)/총보험료”⁴⁾를 적용해야 함.
- 자동차보험을 예로 보면, 2014년 총보험료 기준 손해율이 88.5%이나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시현했다고 평가하지 않으며, 실제 사업비 지출금액까지 포함한 합산비율은 108.3%로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됨.

〈그림 1〉 손해율 및 합산비율 산출방식 비교

손해율	합산비율	건보공단방식
지급보험금	지급보험금 + 실제사업비	지급보험금 + 실제사업비
위험보험료	위험보험료 + 부가보험료	위험보험료 + 부가보험료

- 보험회사의 실제 통계자료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은 상기의 기준 모두 100%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(손해보험업계 13개사,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2014년도 실적 기준⁵⁾).

-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기준 손해율(지급보험금/위험보험료)은 122%로 산출되어 공단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됨.
- 보험료 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보험금 지급 재원인 위험보험료와 실제 지급보험금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함.
- 실손의료보험의 합산비율은 부가보험료를 모두 집행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118%, 단독실손의료보험의 실제 사업비 집행률⁶⁾을 적용할 경우 무려 130%대로 추정됨.
- 건강보험공단 방식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02%로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구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됨.

-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판단을 위해서는 손해율, 합산비율 등 다양한 비율을 활용할 수 있으나, 포함되는 비교 대상 변수를 정확히 적용하여야 불필요한 논란을 축소할 수 있을 것임. [kiri](#)

3) 보험업계 통계에 기반하여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위험률.

4) 합산비율이 100% 이상이면 보험상품 판매로 인해 보험회사는 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.

5)

위험보험료	총보험료	지급보험금
13,942억 원	16,590억 원	16,971억 원

6) 2014년 기준 175.5%,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가입 시 보장내용 설명, 중복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을 위한 판매비 및 보험금 지급 시 실손보상을 위한 조사비용, 갱신안내비용 등을 위해 높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타 상품보다 사업비 집행률이 높음.